

# ‘당비대납’ 불씨 전남지사 경선 태우나

선관위 고발...진상조사특위, 김한길·안철수 대표에 보고

검찰 출두 최악 상황으로 가면 지방선거 전체 부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 경선 일정이 10일로 확정된 가운데 당비 대납 사건의 불씨는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어 향후 경선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장, 중앙당 ‘지방선거 검경수사 진상조사특위’는 전남지사 경선 후보인 이낙연·주승용 의원의 당비 대납 사건 조사 보고서를 1일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당 지도부가 “당에서 조사해 개연성이 크다면 검찰 조사 이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후보 자격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발 대 수사의회=전남도선관위는 당비 대납과 관련, 이낙연 후보 지역 사무소 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에서는 은행에 당비를 직접 납부하기 불편해하는 당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당비 대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원들이 입당원서와 당비를 지역 사무실로 보내오면 이를 보관했다가 일시에 납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납부 당비가 3178만원, 당원도 무려 2만6117명에 이르고 있어 규모면에서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전남도선관위는 주승용 후보 지역 사무소 직원 4명을 당비 대납과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원 1310명의 당비 786만 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주 후보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정상적인 당원 배가 운동이었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주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수사 의뢰를 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여기에 규모 면에서도 이낙연 후보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선 그대로 진행되나=중앙당 ‘지방선거 검경수사 진상조사특위’는 1일 당비 대납 조사 보고서를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넘겼다. 이에 따라 김·안 공동대표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정무적 판단을 통해 상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특위에서는 특정 후보의 당비 대납 사건에 대해 상당히 엄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당내 인사들도 검찰이 당비 대납 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선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대로 경선을 진행하다가 예비 후보의 검찰 출두 사고라도 나면 수도권 전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선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여기에서 특정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경선 판을 뒤집을 경우 더 큰 파장이 불가피한데다 일정도 빼들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지사 후보 경선마저 파행을 거듭한다면 지도부에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경선이 그대로 진행된다 해도 당비 대납 문제는 검찰 수사와 맞물려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속속 확정

새정치, 서울 박원순 등 12곳...전남은 10일·광주는 미정

새누리도 광주 이정재·전남 이종효·전북 박철곤 등

여야가 ‘세월호 참사’로 잠시 중단됐던 경선 일정을 재개하면서 6·4 지방선거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수습과 희생자 추모 분위기 속에 29일부터 비교적 차분하게 경선과 선거운동을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30일 경선을 통해 부산·대전시장, 강원지사 후보를 확정한다. 전날 실시했던 충남지사 경선결과도 이날 발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남 실시한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영춘 전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장 경선은 그동안 단수 후보나 추대 등을 통해 후보가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첫 경선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남지사 경선도 이날 실시하고 다음달 1일 결과를 공개한다.

이날 예정된 경선일정이 마무리되면 새누리당의 경우 전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다음달 경선이 실시되는 서울(12일)과 경기(10일), 인천(9일) 등 수도권을 제외한 광주(이정재), 전남(이종효), 전북(박철곤), 대구(권영진), 경북(김관용) 등 14곳의 후보가 확정된다.

■ 확정된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 지역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
| 광주 | 이정재  | -       |
| 전남 | 이종효  | -       |
| 전북 | 박철곤  | -       |
| 서울 | -    | 박원순     |
| 부산 | 서병수  | 김영춘     |
| 대구 | 권영진  | 김부겸     |
| 인천 | -    | 송영길     |
| 대전 | 박성호  | 권선택     |
| 울산 | 김기현  | 이상범     |
| 강원 | -    | 최문순     |
| 충남 | 정진석  | 안희정     |
| 충북 | 윤진식  | 이시종     |
| 경북 | 김관용  | 오종기     |
| 경남 | 홍준표  | -       |
| 제주 | 원희룡  | 신구범     |
| 세종 | 유한식  | 이춘희     |

새정치민주연합도 경기·광주·전남·전북·경남 등 5곳을 제외와 ▲서울(박원순) ▲인천(송영길) ▲대구(김부겸) ▲충북(이시종) 등 12곳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이날 확정됐다.

전남과 경기는 다음달 10일과 11일 각각 경선이 실시되며, 아직까지 광주시장 경선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여론조사, 1000명 대상 8~9일 실시

# 공론조사 선거인단 남·여비율 50%씩

새정치 전남지사 후보 경선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실시기로 하면서 구체적 경선 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경선방법은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로 한 상태다.

여론조사는 한국조사협회에 등재된 조사기관 2개를 선정해 오는 8일과 9일 실시한다. 유선전화 임의결기(RDD) 방식으로 1000명씩 면접해 조사한다. 면접시 지지정당을 물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유효 표본을 조사기관별로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키로 했다.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공론조사의 경우 선거인단 규모를 애초 유권자수의 0.2%인 3000명 정도로 논의했으나 1000명으로 줄이고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중앙당이 유선전화 임의결기 방법으로 모집하기로 했다.

공론조사 선거인단 역시 지지정당을 물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반반으로 하기로 했으며 연령별로는 45세 미만 40%, 45세 이상 60%로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인단에 포함된 선거인에게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 및 투표 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1회 이상 안내하기로 했다.

선거인단은 장흥실내체육관에 모여 후보 3명의 토론회를 보고 투표를 한다. 토론회는 후보자의 정견발표, 패널의 공통질 의와 후보자의 응답, 후보자 상호토론 및 선거인단 서면질의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정치연합, 전북지사 후보

# 100% 여론조사로만 선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0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6·4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후보를 100%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여론조사는 착신 금지를 전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안철수 공동대표 측 인사인 강봉균 예비후보는 이 같은 경선방식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출신인 유성업 예비후보는 100% 공론조사를, 송하진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50%씩 반영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있어 광주시장만 공천 방법을 정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경선을 시행하는 안과, 안 대표 측 인사인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전라공천하는 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1~2일 사이에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음해기사 보도 관련 기자 고소

윤장현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는 30일 “허위 음해 기사를 보도한 N인터넷매체 S기사를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공표 및 방송 신문 등 부정 이용)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S기사는 지난 26일 ‘윤장현 위원장, 광주 도심 불법 농지 보유 논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데 이어 29일 ‘윤장현 전 위원장에 불통된 병원 운영 돈거래 진실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 같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음해성 보도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유사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뭘 좋은의견들 없나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오후 진도군청에 마련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조수색 관련 각계각층 전문가 회의를 열고, 모 두 발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투자자 모심"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

**물건: 부동산 경매 진행 물건**  
**기간: 1년~2년 정도**  
**방식: 단독, 공동투자 방식**  
**자본: 1억원 이상**  
**수익: 상담후 결정**

##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입찰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